

글로벌 ‘에너지 안보’ 경계감 커져 韓, 국가 차원 수소전략 마련 시급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IEA, ‘수소’ 에너지 안보 수단 제시
정부 정책 혼선… 산업성장 발목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흔들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계감이 증폭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웃도는 한국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자립도 제고가 당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수소가 장기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수소산업이 에너지 안보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7%에 달했다.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수십 년째 90%대에 머물고 있다. 중동 정세가 악화될 때마다 국제유가와 가스 가격, 해상 운송비 등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구조인 만큼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이 산업 경쟁력과 물가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수소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했다. IEA가 지난 6월 발간한 ‘글로벌 하이드로젠 리뷰 2026’은 중동 분쟁으로 수소 기반 제품의 생산과 교역까지 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질을 빚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저배출 수소가 재생에너지 등 자국의 에너지원을 활용해 화석연료 수입을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수소가 당장 석유·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IEA도 저배출 수소의 생산 규모와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현재의 에너지 위기에 즉각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장기적인 투자와 수요 창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IEA는 정책 불확실성과 높은 비용, 부족한 인프라를 수소 산업 확대의 주요 장애물로 꼽으며 장기적인 정책 지원과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각국의 수소 정책도 선연적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국가 차원

의 수소 전략을 보유한 국가는 2021년 23개국에서 2026년 66개국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은 수소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5개 도시군에 4년간 최대 80억 위안(약 1조 6100억원)을 지원하는 2차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일본은 3조 엔(약 25조 83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저탄소수소와 화석연료의 가격 차액을 최장 15년간 보전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유럽수소은행을 통해 재생 수소 생산자에게 최장 10년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4차 경제 조안을 발표하며 5억 유로(약 7732억원) 규모의 공모를 예고했다.

글로벌 수소 기업 협의체인 수소위원회도 이달 발간한 ‘글로벌 하이드로젠 컴퍼스 2026’에서 수소가 탈탄소 수단을 넘어 에너지 안보, 회복탄력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책 환경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소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관련 지원 규모가 축소되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가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

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저속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의 항노화·역노화 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시 : 2026년 10월21일(수)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돌입… 투자자에 韓 자본시장 경쟁력 알린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행사 주도
삼성·SK 등 국가대표 기업 설명회
이억원 “韓 가능성 직접 보여드릴 것”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본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 개막식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국내 자본 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근본적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역동적 성장성을 확인하고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개막식에서 영상 축사를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정부(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대규모 첫 행사다. 그동안 흩어져 진행됐던 기업설명회(IR)와 자본시장 관련 행사들을 한 데 모아 해외 기관투자자와 국내 참여자에게 한국 증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보여주자는 취지

다. 일본과 대만이 자국 증시를 알리기 위해 운영 중인 ‘채팬 위크’ ‘타이완 위크’와 비슷한 형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장에는 언제나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한다”면서 “최근 우리 증시도 국제유가 상

승, 글로벌 금리 인상 압력, 인공지능(AI)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 극복할 과제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흔들림 없이 안착시켜 나가며, 안정성 강화 등 시장의 내실도 함께 다져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케빈 스니더 골드만삭스 대표, 주드 압텔 마제이드 블랙록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총괄과 면담도 진행했다.

케빈 대표는 “한국 자본시장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지수의 1만2000 포인트 상회 전망을 제시한 바 있듯이, 한국 증시의 미래는 밝다(Very Positive)”고 말했다. 이어 그는 “AI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한국은 AI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금융 분야 등 견조한 산업군이 많다”며 “이러한 유망 산업들의 안정적인 이익을 시장이 인식한다면 증시의

지금 유입 및 균형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주드 총괄은 “한국의 견고한 경제와 산업은 매우 높게 평가돼야 하며, 특히 국민 성장펀드가 국내 유망 기업들이 발돋움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주차에는 기관투자자 대상 글로벌 콘퍼런스를 한다. 이날 개막식과 정책 세션을 시작으로 ▲자본시장 개혁방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성과와 발전 방향 ▲외환 시장 개혁방안 등이 논의된다.

변재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는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고빈도 매매(HFT)에 관해선 적절한 규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규제 방식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징역 1년 구형… “사고 선물로 볼 수 없어”
▲ 여야, 내일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키로… ‘지뢰 사고’ 현안질의

▲ 선관위 특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출국 금지 연장
▲ 김병기 수사 ‘9월 내 처리’ 불발…경찰, 기한 연장 요청



▲ 정부, 3250억원대 원들러 상대 ISDS 승소 확정
▲ 9월 모의평가 ‘물영어’ 현실로… 1등급 비율 15.54%

/사진 뉴시스